

지역 소식

김제시, 6급공무원 80명 맞춤형 직원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29일 6급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직 동기부여와 경력관리 교육을 시작으로 '2017년 맞춤형 직원교육'을 추진했다.

2017년 총 7회 예정인 올해 교육은 그간 지적되어왔던 '위탁교육의 전문성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에 접목이 용이한 '실용적인 교육'으로 진행하고자 교육대상자를 직급별·업무별로 세분화하고, 교육과정을 대상자 맞춤형으로 편성하여 추진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은 "각 부서의 중간관리직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참석한 이번 교육이, 시정 발전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보건소 임신부자동차표지 발급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임신부에게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 공영주차장과 다중시설 이용 시 임신부를 배려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발급 대상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로서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는 발급받아 부착한 날로부터 분만에정일 이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임신부 전용 주차구역의 양보하는 작은 배려가 출산 친화적인 엄마와 아기가 살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고 한층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생활문화기술교육과정 신청자 접수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2017년 생활문화기술교육 4개 과정을 마련하고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은 4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꽃차스물리에 3급과 식생활교육지도사, 천연염색 기초, 자연발효 저장음식 4개 과정이고, 과정별 모집인원은 30명이다.

기술센터는 "꽃차스물리에 3급과 식생활교육지도사 과정은 많은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천연염색 기초와 자연발효 저장음식은 실습 비중을 높여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아류스캔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

공장 신설 투자 협약... 50억원 투입 100여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 기대

전북연구개발특구(이하 전북특구) 연구소기업인 (주)아류스캔(이하 아류스캔)이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한다.

이와 관련, 29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공장 신설 투자에 대한 투자협약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김생기 시장과 윤지섭 첨단방사선연구소장, 박은일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 태경중공업(주) 이수태 회장, (주)아류스캔 이호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아류스캔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컨테이너 검색기의 핵심 기술인 '방사선 비파괴 검사기술' 등을 현물 출자하고 해양플랜트와 산업기계 제조 전문기업인 태경중공업(주)에서 현금 출자하여 전북연구개발특구 제12호 연구소기업으로 설립(2016. 8. 9)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정책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특구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북특구는 2016년 전북특구 기술 이전 사업화 사업으로 오는 2018년까지 약 5억원(2년)의 사업화 자금을 (주)아류스캔에 지원한다.

아류스캔이 사업화하는 컨테이너



검색기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 기술'을 이용해 화물을 개장하지 않고도 빠른 시간 안에 내부의 물질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검색 장치이다. 세계에는 약 2500여 개의 컨테이너검색기가, 국내에는 전량 수입한 컨테이너검색기 14대가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 운용되고 있다.

태경중공업(주)권순우(참여업체: (주)아류스캔)는 지난해 말에 관세청으로부터 약 175억원 규모의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사업을 수주하여 올해 말까지 부산항과 인천항에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대 당 수입액 원에서 110억원에 육박하는 제품의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지속적인 유지 보수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는 물론 1조원대 규모의 세계 컨테이너검색기 시장으로의 국산 제품 수출도 기대된다.

아류스캔은 본격적인 국산 검색기 생산과 추가 제품 개발을 위해 전북특구 지역인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1만8988㎡(5,747평)의 부지에 50억원을 투입하여 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100여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장학숙,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

지난해 9월 본격 개관한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소재 정읍장학숙이 새봄을 맞아 활기를 띠고 있다.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건립된 정읍장학숙은 98명 정원으로, 38실을 갖추고 있는 기숙사이다.

독서실과 체육 단련실, 상담실, 게스트룸, 휴게실, 식당, 라운지, 동아리실, 다목적실 등의 최신 편의시설을 갖추고 개관했다.

시는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입학생들의 편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울은 물론 장학숙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간 1층 로비에 설치돼 외부인 출입 통제에 어려움을 초래했던 무인 택배함과 우편함을 출입구에 재배치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했다.



또 6층 독서실 내에 설치돼 있던 도서 열람대로 1층 로비로 옮겨 학생들이 등하교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도서 열람대 재배치로, 도서 대출이 20% 늘어나는 등 면학 분위기가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신규 도서 250여권을 추가로 구입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력 단련실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낮에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탁구와 자전거 등을 이용하면서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체력을 키워가고 있다.

장학숙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시설을 정비해 학생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유회 회의 제정, 동아리 모집, 단합대회, 봉사 활동 소식지 발간 등 입학생들의 활동에도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개선 컨설팅 후속 실행사업 공모 부안군 선정... 예산 확보

읍내 원도심 활성화 위한 콘텐츠 강화 추진

부안군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실시한 2017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개선 컨설팅 후속 실행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6000만 원 등 총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관광수용태세 개선 컨설팅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속 실행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됐으며 부안군은 부안읍 원 도심 콘텐츠 강화 및 지원사업을 제출해 선정돼 부안군은 연말까지 부안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부안 상설시장 콘텐츠

강화사업으로 부안 속살관광 상품 개발, 네이밍 공모전 개최, 대표 먹거리 육성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군은 부안 상설시장 콘텐츠 강화 지원사업으로 부안 마실 관광학교운영 및 콘텐츠 홍보 지원 등을 실시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관광수용태세 개선 컨설팅을 통해 부안군 통합 관광브랜드 육성 및 부안군 원도심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개선사업들이 도출됐다"며 "이를 통해 부안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 규제개혁 조례정비 개선 탄력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김제시 규제개혁 조례 정비가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개선의 급물살을 탔다.

김제시는 29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이승복 부시장 주재하에 관련 7개 부서별 담당회의를 개최하고 19개 조례 속에 숨어있는 규제내용과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강력하게 제·개정 추진에 나섰다. 정비 대상 19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초 법제처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전수조사 실시로 발굴한 것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것이다.

앞으로 대상조례는 조례안별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의견검토회 및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정비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기자

나선화 문화재청장, 김제관아 복원사업 현장방문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지난 28일 사적 제 482호로 지정된 김제관아와 향교를 방문하였다.

나선화 청장은 김제에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추진하는 김제관아 복원사업 현장 및 김제향교를 둘러보며 "조선시대 교육과 행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라며 김제시 문화재에 대한 각별한 애착을 보였다.

나선화 청장은 "문화재는 사람이 활용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문화재에 대한 신념과 소신을 밝혔다.

이전시 김제시장은 청장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김제관아 복원사업과 김제향교 인근 부지에 조성계획된 석정 이정직 기념관 건립사업 등이 사람이 찾고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시, 정부양곡 안전보관 요령·정기 재고조사 교육

정읍시는 지난 28일 정부 양곡 보관 창고주와 농협 담당자, 양곡 관리 담당 공무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안전보관 요령과 정기 재고조사 교육을 가졌다.

시는 "양곡의 안전한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정확한 재고 조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이번 교육이 양곡의 품위 안

정과 저장성 향상은 물론 양곡 수급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정확한 재고량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양곡 재고 조사는 상·하반기 2회 실시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월말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간 실시된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odi Wine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1쌍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E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